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09. Vol. 21, No. 3, pp. 163~176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수영* · 이형실**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The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Variables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n, Su Young* · Lee, Hyong-Si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Pr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der differences of peer relationship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variables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1,444 students of second and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who reside in Seoul and 1,397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emale and male adolescents in peer relationships. Female adolescents' friendship quality was higher than male adolescents', and male adolescents' peer victimization was higher than female adolescents'.

Second, higher self-esteem, positive parenting behavior, higher level of parental supervision and lower level of interparental conflict predicted higher level of friendship quality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Higher depression, lower self-esteem, positive parenting behavior, lower level of parental supervision and higher level of interparental conflict predicted higher peer victimization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Key Words: 청소년(Adolescent),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s), 또래괴롭힘(Peer Victimization), 친구관계의 질(Friendship Quality)

1) 교신저자: Lee, Hyong-Sil,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The Republic of Korea
Tel: 02-820-5397 Fax: 02-812-5311 E-mail: hslee97@hotmail.com

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축소와 출생률 저하로 인한 형제 관계 감소, 맞벌이 부부와 취업모의 증가와 같은 변화로 인해 성인이 되기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바람직한 또래관계 발달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이은해, 1999). 또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또래괴롭힘 현상과 그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행동, 폭력, 자살 등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이시형, 김미영, 이세용, 2003),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인식이 모아지고, 건전한 사회성 발달 및 적응을 위한 또래관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김재현, 2007).

현재까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는 또래 애착, 또래 지지, 또래 수용, 또래 거부, 또래 공격, 또래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을 주로 다루어 왔다. 이러한 주제는 주로 또래집단 내에서의 지위나 수용도를 중심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았으나 최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주목 받는 것은 친구관계에 관한 것이다. 친구관계는 또래관계 속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인데,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는 놀이친구 중심인 아동의 또래관계와는 달리 상호간에 깊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친구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에게 있어 상호적이고 이원적인 또래관계인 친구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청소년은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과 안정감을 느끼고 갈등이 낮아진다. 또한 친구가 많고 친구관계가 기능적일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유능감과 만족도는 높아진다(서주현, 유안진, 2001; 홍주영, 도현심, 2002). 이러한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보호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래괴롭힘을 덜 당하도록 보호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배재현, 최보가, 2001). 이처럼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통해 청소년은 정서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정체감과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기술을 학습하여 사회성 발달은 물론 인지발달에도 도움을 받는다. 그리하여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청소년기 이후 청년기와 성인기의 원만한 사회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영선, 이경님, 2004; 홍주영, 도현심, 2002).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는 청소년의 부정적인 발달 및 적응의 원인이 되는 또래괴롭힘이 있다. 생애발달과정에서 또래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청소년시기에 청소년이 지속적인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로움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학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하여 등교거부와 같은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진다(양원경, 도현심, 1999; 임지영, 1998; 최미경, 도현심, 2000; 최진희, 2000; Olweus, 1993). 이러한 부적응은 단지 또래괴롭힘을 받는 그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청년기나 성인기의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우울 성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gan & Perry, 1998; Olweus, 1993).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양상인 친구관계의 질과 부정적인 또래관계의 양상인 또래괴롭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개인의 특성이나 인기 또는 거부로 분류되는 사회측정적 지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또래관계와 관련된 청소년의 발달적인 원인이나 결과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Bukowski, Newcomb, & Hartup, 1997), 최근의 연구들은 또래관계가 개인의 특성, 친밀한 관계,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Bukowski et al., 1997; Hartup & Van Lieshout, 1995).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개인심리요인과 가족요인이 있다. 우선, 청소년은 친밀감, 신뢰, 상호존중과 같은 심리적 기반이 요구되며, 또한 이러한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절한 내적 성숙과 발달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개인심리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인데, 청소년시기 발달에 있어 핵심 과제이면

서 동시에 원만한 사회적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의 바탕이 되므로 또래관계 형성에 중요한 심리요인이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쉽게 우울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우울 상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가족요인과 관련이 있다. 가족요인 중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근원적인 학습의 장이 되므로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구본용, 김택호, 김인규, 1999). 부모의 감독은 더 이상 가정의 틀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핵가족에서 부부관계는 자녀에게 중요한 인간관계의 모델이 되는데(권석만, 2006),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부갈등이 더욱 표면화되며 증폭되고 있으므로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구관계의 질과 또래괴롭힘 두 측면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양상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개인심리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우울, 가족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부부갈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이 원만한 친구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또래괴롭힘과 같은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발달과 또래관계에 관한 가정 교과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위한 청소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또래관계(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개인심리요인과 가족요인은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또래관계

또래란 비슷한 연령이나 비슷한 성숙도를 가진 아동 혹은 청소년을 말하는데,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또래관계의 확장이다. 청소년 시기에 또래집단은 준거집단과 지지집단으로서 서로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Gross & Siperstein, 1997).

최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친구관계에 관한 것이다. 또래관계와 친구관계는 서로 자주 혼용되는데, 친구관계는 또래관계 속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다. 또래관계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집단 내에서 개인이 맺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를 일컫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연령이 강조되며(Hartup, 1977), 친구관계는 주로 두 친구의 관계에 국한하여 사용되고 관계의 친밀함이나 호혜성을 내포한다(이은해, 고윤주, 1999). 또래관계가 비자발적인 이차적 집단으로 구성원들의 수가 많고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낮은 관계라면, 친구관계는 상호선택에 의한 친밀한 양자관계로서 또래관계와 비교해서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이은희, 2005). 놀이친구 중심인 아동에게 또래관계가 주된 관계의 양상이라면, 신체적, 환경적, 심리적인 변화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상호 친밀감에 초점을 두는 친구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황혜정(2002)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가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릴 때는 또래와의 놀이, 교제, 관심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였고, 청소년기에는 자신과 생각이 같고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좋아하여 신뢰와 비밀공유가 친한 친구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대학생은 진실성, 친밀가능성, 유사성에 따라 친구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2002)은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의 양상을 비교한 결과, 공격적인 청소년은 또래관계 내에서 갈등, 무시, 일방적 주도와 같은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수행하며, 또래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지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다. 청소년의 또래괴롭힘과 우정의 질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는(배재현, 최보가, 20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며, 또래괴롭힘과 우정의 질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서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중요한 보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친구관계는 매우 긍정적인 또래관계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고 청년기 이후의 바람직한 사회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며 비행, 우울 등의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가져오는데(Kupersmidt & Coie, 1990), 이러한 부정적인 또래관계 중 대표적인 것이 또래괴롭힘이다.

또래괴롭힘이란 한 학생이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Olweus, 1978). Smith와 Sharp(1994)는 또래괴롭힘을 신체적인 괴롭힘, 언어적인 괴롭힘, 간접적인 괴롭힘으로 구분하였다. 신체적인 괴롭힘에는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 언어적인 괴롭힘에는 별명 부르기, 모욕하기, 반복적인 놀림을 당하는 것, 간접적인 괴롭힘에는 나쁜 소문 퍼뜨리기, 집단에서 제외시키기 등을 당하는 것이 포함된다. 남아는 또래에 의한 신체적 형태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여아는 또래에 의한 언어적 형태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에 의한 간접적인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ick과 Bigbee(1998)는 또래괴롭힘을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으로 분류했다. 명백한 괴롭힘은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공격과 함께 욕을 하거나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조롱하는 언어적인 공격을 포함한다. 관계상의 괴롭힘은 생일파티나 학급활동에서 제외시키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 친구가 없도록 만들어 고립시키는 것과 같이 관계에서 따돌림을 하는 심리적인 괴롭힘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형태와 경험 수준,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양상에 대한 연구가 있고(김정원, 2000; 김희화, 2002; 양원경, 도현심, 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와 그 심각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임지영, 1998; 최진희, 2000). 그러나 청소년이 가진 어떠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또래괴롭힘을 많이 겪는지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또래괴롭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청소년의 또래관계 관련 요인

1) 개인심리요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경험과 의미 있는 타인 및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양원경, 도현심, 1999).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강민주(1994)는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양원경과 도현심(1999)의 연구, 그리고 김정원(2000)의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양방향적으로 볼 수 있어서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가 낮은 자아존중감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하여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한규(199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보다 불안 성향이 강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부정

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므로 또래들과 충돌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의 청소년은 또래괴롭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괴롭힘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구본용, 1997; 이영선, 이경님, 2004; 이춘아, 2001; 이해경, 김혜원, 2000; 조샘이, 2001; Egan & Perry, 1998; Olweus, 1993).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심리 요인으로 우울이 있다. 우울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사람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인데, 청소년기의 우울은 이들이 경험하는 발달 과정상의 큰 변화와 관련이 있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보편적으로 증가하는 증상이다. 우울은 심리적으로 우울한 기분, 무가치한 느낌, 죄책감, 흥미의 상실, 집중력과 기억력의 감소,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과 신체적으로 식욕의 변화, 체중 변화, 수면의 변화, 피로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이정선, 2006).

정혜진(2006)은 어머니와 자녀의 성격적 특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에서 우울이 불안, 슬픔, 수줍음과 같은 위축된 정서유형들과 같이 또래괴롭힘 피해아의 대표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정선(2006)은 청소년이 또래친구관계가 낮을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박은조(2000)는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우울한 집단이 비우울 집단보다 남과 어울리지 않고 또래친구 간에 인기가 없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래친구가 없다고 느껴서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고, 자기비하와 대인기피증 같은 부정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요인

가족은 자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김혜정, 2005). 청소년의 개인적 성향인 성격, 정서, 사회성 등은 일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 가족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이러한 개인적 성향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족요인을 중요시하여 왔다(Minuchin, 1985).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에게 있어 긍정적인 자아 형성은 물론이고 대인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근원적인 학습의 장이다(구본용 외 2인, 1999).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에게 동일시 할 수 있는 대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보살핌과 관대함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모델이 되어줌으로써 자녀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바람직하지 않고 비판적이며 자녀의 권리를 박탈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이에 의해 성장한 자녀들은 또래집단에서 부적절하고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배척받는 원인이 된다(Putallaz & Heflin, 1990, 최은숙, 1999,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질을 살펴본 유윤아(2005)의 연구는 결손가정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녀의 친구기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미경(2002)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또래관계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는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특히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긍정적인 또래관계간에는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또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샘이(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을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녀의 언어적인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물리적인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통제적인 양육행동과는 정적인 상관, 그리고 애정적인 양육행동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

가 낮을수록 자녀들이 또래괴롭힘을 당하기 쉬운 행동을 촉진시키며,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할수록 또래괴롭힘을 당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두드러진다고 한다(Schwartz, Dodge & Coie, 1993; Smith & Sharp, 1994).

한편, 부모-자녀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는 경우에도 또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이 있을 때 초기 청소년 자녀가 또래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었는데, 특히 남아의 경우에 그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숙, 이춘아, 1998; Finnegan, Hodges & Perry, 1998).

더 이상 가정이라는 틀 안에 머무르지 않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 가정 이외의 영향과 부모의 영향권 밖에 있는 자녀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절하는 감독자로서의 부모역할이 또한 중요하다.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친구관계 및 가정 밖에서의 활동양상과 장소 등에 대해 부모가 파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감독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이러한 규정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이 규정을 지키는 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며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 이루어질 효과적인 훈육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정자, 2003). 그런데 부모의 감독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자녀의 사회적 관계 발달과 관련하여 주목 받고 있는 가족요인은 부부갈등이다. 현대 가족의 특징인 핵가족은 인간관계의 범위가 부모-자녀관계로 집중되므로 부부관계는 자녀에게 중요한 인간관계의 모델이 된다(권석만, 2006). 또한 이혼이 증가하고 가정의 붕괴와 불화가 더욱 많아지는 우리 사회에서 부부갈등이 빈번해지고 표면화됨에 따라 부부관계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되는 청소년은 부모가 서로 갈등을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를 학습하여, 또래와 대립이 생겼을 때에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것과 같은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Davi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0).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고, 부부갈등의 정도는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기술이나 사회적인 능력을 예측하게 하며(Gottman & Katz, 1989), 심각한 부부갈등에 따른 가정의 붕괴나 불화는 또래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유능성이나 성공의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한다(Ladd, 1992).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전정옥(2007)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또래관계의 질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홍주영과 도현심(2002)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우정관계의 질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낮고 부정적인 감정은 높았으며 친구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중학교(남녀공학)에서 3학년 남녀 학생 6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문항내용과 질문의 순서 및 응답 방식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조사는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22일까지 이루어졌는데, 서울시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지역 제한을 두고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별로 남녀공학 중학교를 각각 1개 씩 선정하여 총 11개 학교에서 전체 1,4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중 부실 기재된 47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757명, 여학생 640명, 총 1,397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측정 도구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임수경(2007)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임수경의 척도는 친구관계에 대한 기능적 특성 척도를 18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총 15문항의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양원경과 도현심(1999)의 또래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iggins와 Winder가 개발한 Peer Nomination Inventory (PNI)를 토대로 수정한 것으로, 각각 또래평가, 교사평가, 자기보고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평가 7문항을 사용하였다. 최저 7점에서 최고 3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지하는 또래괴롭힘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괴롭힘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존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를 사용하였다. CES-D는 현재의 우울증상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 보고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CES-D를 수정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고 청소년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er와 동료들(1979)이 제작한 PBI(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BI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행동의 기본적 요소를 돌봄과 통제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한 척도인데, 본 연구에서는 돌봄만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찬란(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감독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자녀가 외출했을 시 누구와 어디에 있고 언제 돌아오는지를 부모가 알고 있는가, 늦은 귀가 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를 알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5문항이다. 부모의 감독 정도는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가 높고 자녀에게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감독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찬란(2005)이 사용한 CPIC(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를 사용하였다. CPIC는 부부의 갈등상황에서의 행동과 갈등상황 이후의 행동에 대한 10개의 문항이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갈등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12.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과 또래관계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개인심리요인과 가족요인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와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 2학년은 690명(49.4%), 3학년은 707명(50.6%)이었고, 남학생은 757명(54.2%), 여학생은 640명(45.8%)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 수는 자신 이외의 형제자매 수가 1명인 경우가 992명(71.0%)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순위는 막내가 610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조사대상자는 한 달 용돈을 1만원 이상에서 3만원 미만을 쓰는 경우가 456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을 쓰는 경우가 442명(31.6%)으로 대부분이 1만원에서 5만원 미만 정도의 용돈을 쓰고 있었다. 가계 소득을 살펴보면 한 달 소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11명(22.3%),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88명(20.6%), 500만원 이상이상인 경우가 276명(19.8%)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46세에서 50세인 경우가 577명(41.3%), 41세에서 45세인 경우가 545명(39.0%)으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의 아버지는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41세에서 45세인 경우가 748명(53.5%)으로 절반이상이 4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졸인 경우가 495명(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인 경우가 473명(33.9%)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고졸인 경우가 624명(44.7%)으로 가장 많았다.

2. 성별에 따른 청소년 또래관계의 차이

연구문제 1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또래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또래관계(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또래관계에서 친구관계의 질은 평균 55.02점(범위 15~75)으로 나타나 척도의 중간값(45점)과 비교해 볼 때, 다수의 청소년들은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며 친구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평균 53.33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57.02점으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은 평균 13.11점(범위 7~35)으로 나타나 척도

〈표 1〉 성별에 따른 청소년 또래관계의 차이

요 인	전 체			남			여			t
	N	M	SD	N	M	SD	N	M	SD	
친구 관계의질	1,395	55.02	9.49	757	53.33	9.75	638	57.02	8.76	-7.44***
또래 괴롭힘	1,387	13.11	5.17	752	13.86	5.40	635	12.22	4.72	6.03***

***$p<.001$

의 중간값(21점)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또래괴롭힘 피해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평균 13.86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12.22점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비교해보면, 친구관계의 질과 또래괴롭힘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친구관계의 질에서 여자 청소년의 점수가 남자 청소년 보다 높아서 여자 청소년들의 친구관계가 남자 청소년보다 더 긍정적이고 친구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7.44, p<.001). 친구관계의 질에 있어 성별 차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친밀한 대화나 서로에 대한 충실성에 더 몰두하여 대인관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Santrock, 2003/2004). 반면에 또래괴롭힘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점수가 높아 남자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또래괴롭힘 피해 정도가 여자 청소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t=6.03, p<.001).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을 조사한 신재은(2000)의 연구, 이춘아(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3. 청소년 또래관계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력

연구문제 2는 개인심리 요인과 가족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개인심리요인과 가족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중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남자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부부갈등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18이다. 부모의 감독이 남자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β=.23, p<.001), 그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β=.21, p<.001), 부모의 양육태도(β=.10, p<.05), 부부갈등(β=-.08,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남자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더 긍정적이며 친구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태도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15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자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β=.17, p<.001), 그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인 것으로 나타났다(β=.16, p<.01). 즉, 여자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친구관계는 더 긍정적이며 친구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부부갈등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19이다. 우울이 남자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β=.23, p<.001), 그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β=-.20, p<.001), 부부갈등(β=.14, p<.001), 부모의 양육태도(β=-.12, p<.01), 부모의 감독(β=-.11, p<.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부모의 감독이 소홀할수록 남자 청소년이 인지하는 또래괴롭힘 피해 정도는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12이다. 우울이 여자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β=.26, p<.001),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β=-.12, p<.05), 자아존중감(β=-.11, p<.05), 부모의 감독(β=-.09,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소홀할수록 여자 청소년이 인지하는 또래괴롭힘 피해 정도는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더 긍정적이며 친구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여자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이며 친구관계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자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또래괴롭힘의 피해 정도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부모의 감독이 소홀할수록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자청소년들이 인지하는 또래괴롭힘은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소홀할수록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관계의 양상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개인심리 및 가족요인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11개의 지역 교육청 별로 각각 1개의 남녀공학 중학교를 선정해서 2학년, 3학년 각각 2개 학급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1444명의 자료 중 부실기재 된 47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757명, 여학생 640명, 총 1,39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청소년 개인이 인지하는 친구관계의 질과 또래괴롭힘의 피해 정도, 자아존중감과 우울 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정도, 부부갈등 수준에 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살펴보면, 친구관계의 질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또래괴롭힘 피해 정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친구관계의 질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또래괴롭힘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질에는 부모의 감독,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부부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질에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는 우울, 자아존중감, 부부갈등,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는 우울,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부모의 감독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또래관계 즉, 친구관계의

〈표 2〉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			
	남		여		남		여	
	B	β	B	β	B	β	B	β
자아존중감	.32	.21***	.22	.16**	-.16	-.20***	-.08	-.11*
우울	.03	.03	-.10	-.10	.14	.23***	.14	.26***
부모의 양육태도	.22	.10*	.30	.17***	.14	-.12**	.11	-.12*
부모의 감독	.59	.23***	.12	.05	-.15	-.11**	-.11	-.09*
부부갈등	-.10	-.08*	-.06	-.06	.10	.14***	.03	.06
상수	30.67		46.34		13.88		10.76	
R^2	.18		.15		.19		.12	
F	31.14***		21.18***		31.88***		16.02***	

*p<.05, **p<.01, ***p<.001

질과 또래괴롭힘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친구관계의 질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더 높았고, 또래괴롭힘에는 남자 청소년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은 보통 남자 청소년에 비해 친밀한 대화나 충실성을 중시하며, 남자 청소년보다 더 관계 지향적이다. 또한 남자 청소년은 남성적이고 경쟁적인 특성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지 않는 문화 속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비교할 때 친밀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여자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질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직접적인 마찰이 많고 부정적인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발달과 성숙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는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심리요인과 가족요인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친구관계의 질과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개인심리요인과 가족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면,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부부갈등의 요인 중에서, 한두 가지의 요인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요인이 친구관계의 질과 또래괴롭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또래 및 친구관계가 개인의 특성, 친밀한 관계,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양상인 친구관계의 질과 부정적인 또래관계의 양상인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관련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남녀 청소년 모두에 있어서 우울은 친구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또래괴롭힘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은 관련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들의 영향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이 또래괴롭힘에 많이 노출된다고 인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은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후 청소년의 부정적인 또래관계 양상과 우울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양상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개인심리 요인과 가족요인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중학교 2, 3학년 학생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이 서울에 한정되어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긍정적 또래관계인 친구관계의 질과 부정적 또래관계인 또래괴롭힘을 모두 포함하였고,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일요인이 아니라 개인심리 요인과 가족요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정자(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구본용(1997).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받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9**.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구본용, 김택호, 김인규(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권석만(2006).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재현(2007). **부모 애착 및 아동의 정서지능과 친구관계 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원(2000).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정(2005).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화(2002).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친구지지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9), 47-61.

박은조(2000).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재현, 최보가(2001). 청소년의 또래괴롭힘과 우정의 질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59-171.

서주현, 유안진(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49-166.

서찬란(2005). **가족환경요인 및 개인심리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원경, 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8.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유윤아(2005).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한규(1997).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 이춘아(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67-77.

이시형, 김미영, 이세용(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는 부모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영선, 이경님(2004).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이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59-672.

이은해(1999).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77-95.

이은해, 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이은희(2005).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선(2006). **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요인과 우울간 관련성.**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춘아(2001).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해경, 김혜원(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임수경(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지영(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정옥(2007).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자아개념과 우울을 매개로 -**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경(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혜진(2006). **어머니와 자녀의 성격적 특성이 또래관계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샘이(2001).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가해, 피해 집단별 관련 요인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경, 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1**(3), 85-105.

최은숙(1999).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진희(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끼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주영, 도현심(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황혜정(2002). 아동과 청소년의 친구관계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35-49.

Bukowski, W. M., Newcomb, A. F., & Hartup, W. W. (1997).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ontemporary Psychology, 42*(9), 807.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37-347.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4*, 299-309.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8). Victimization by peer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4), 1076-1086.

Gottman, J. M. & Katz, L. (1989). Effect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73-381.

Gross, M. W. & Siperstein, G. N. (1997).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learning problems. *Exceptional Children, 63*(2), 183-203.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Hartup, W. W. (1977).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implications and interaction in same-and mixed-aged situations. *Young Children, 32*, 4-13.

Hartup, W. W. & Van Lieshout, C. F. M. (1995). Personality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655.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Ladd, G. W. (1992). Themes and theories: Perspectives on process in family-peer relationships. In R. D. Parke &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3-3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Minuchin (1985). Famili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Provocations from the field of family therapy. *Child Development, 56*, 289-302.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their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 Press(Wiley).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pp.315-341) NJ : Lawrence Eribaum Associates.

Parker, J.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Medical Psychology*, *52*, 1-10.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e psycho Measurement, 1*, 385-401.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Smith, P. K. & Sharp, K. (1994). *School bullying: Insights and perspectives(Eds.)*. London: Routledge.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관계의 양상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개인심리 및 가족요인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부부갈등의 척도를 구성하여, 서울시내 11개의 지역교육청에서 각각 한 개의 남녀공학 중학교를 선정하고, 2, 3학년 학생 1,4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1,397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또래관계 즉, 친구관계의 질과 또래괴롭힘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친구관계의 질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또래괴롭힘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개인심리요인과 가족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남자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질에는 부모의 감독,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부부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질에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는 우울, 자아존중감, 부부갈등,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또래괴롭힘에는 우울,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부모의 감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09년 8월 24일, 논문심사일자: 2009년 8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9월 22일